

# 고소한 강진산 쌀귀리 소비자 밥상으로

강진군, 도암농협·한들농협 창고서 위탁수매  
70여 재배농가 대상 600톤 (주)두보식품에 직송  
“관로 걱정없이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어 만족”

강진군은 지난 2일 강진군 신전면 도암농협 창고, 작천면 한들농협 창고에서 두보식품(주)의 주관으로 70여 쌀귀리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약 600톤의 쌀귀리에 대해 농협 위탁 수매를 실시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2012년부터 보리 수매제가 폐지됨에 따라 농민들의 안정적인 월동작물 유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잡곡 유통업체인 두보식품(주)과 계약재배를 추진했다. 올해는 안정적인 대금 지급을 위해 농협 위탁수매를 추진해 조곡 40kg 기준 6만 원에 쌀귀리 계약을 성사시켰다. 군은 올해 두보식품(주)에 직송물량 200톤과 농협 위탁 수매물량 600톤, 총 800톤의 쌀귀리를 출하해 약 12억 원의 농가수익을 창출

했다. 수매한 쌀귀리는 다양한 상품으로 가공돼 소비자의 밥상에 오를 예정이다. 이날 쌀귀리를 출하한 박정웅(강진읍, 42세) 씨는 “계약재배를 통해 관로 걱정 없이 좋은 쌀귀리를 생산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어 매우 만족한다”면서, “다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생산하는 최고품질의 강진 쌀귀리를 맛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두보식품(주)·도암농협·(주)나주시발작물명품사업단과의 계약재배를 통해 444ha의 면적에 150여 농가가 쌀귀리를 재배했다. 겨울 따뜻한 날씨로 수확량이 전년에 비해 10% 이상 증가했으며 약 1,600톤을 수확해 약 24억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지난 2일 강진군 신전면 도암농협 창고, 작천면 한들농협 창고에서 두보식품(주)의 주관으로 70여 쌀귀리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약 600톤의 쌀귀리에 대해 농협 위탁 수매를 실시했다.

했다. 김춘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강진군은 소비자들의 꾸준한 수요로 전국 최고의 쌀귀리 생산지로 자리 잡고 있다”며 “계약재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 많은 소비자가 더욱 다양한 형태로 강진 쌀귀리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쌀귀리를 활용한 종군민장 제조방법 특허기술로 쌀귀리를 활용한 된장 제품화에 나선다. 이 밖에도 쌀귀리로 만든 국수, 떡, 누룽지, 이유식, 선식 등 다양한 제품 개발로 전국 최고의 쌀귀리 생산지로서 강진군의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 진도군,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절차 간소화

진도군은 최근 토지분할 허가부터 토지분할 및 지적 공부정리까지 한 번에 접수받아 처리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했다. 종전에는 토지분할 관련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한 후, 최종 허가증을 첨부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분할 측량신청을 했던 기존 절차를 개선하여 최종 허가 전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동시에 지적측량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기까지 7~15일 정도 소요됐고 지적측량신청부터 최종측량까지 5~20일정도 총 35일이 걸렸다면 간소화 서비스 시행으로 처리절차가 개선됐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절차 간소화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은 1회 방문으로 토지분할 허가부터 지적공부 정리까지 가능해졌으며, 처리기간도 15일 정도 단축됨으로써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기로 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 완도군, 해초 쿠키·아이스크림 등 먹거리 상품 만든다

디저트 명가 (주)제이브라운과 업무 협약 체결



완도군이 디저트 명가인 (주)제이브라운과 손잡고 먹거리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섰다. 완도군에 따르면 7월 1일 완도군청에서 신우철 완도군수와 정영택 (주)제이브라운 대표가 참석하여 해조류를 활용한 먹거리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데 협력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발 상품은 해조류를 이용한 해초마카롱, 해초아이스크림, 해초쿠키 등 디저트 식품이다. (주)제이브라운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 설립하여 70여명의 직원들이 주로 초콜릿 제품과 케이크를 생산하여 연 매출 50억 원을 올리고 있다.

특히, (주)제이브라운은 최고의 파티쉐와 최신식 제조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대한민국 제1대 월드 초콜릿 마스터인 정영택 명인이 대표로 있다. 양측은 완도 해조류를 활용한 관광 상품 공동 개발, 완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 축제 협력, 사업 공동 홍보·마케팅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2021완도해조류박람회 기간에는 해조류를 이용한 과자 등 디저트 식품 개발, 해조류를 이용한 쿠키 만들기 체험, 디저트 요리 레시피 공유 및 견학 대회 개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동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게 된다. 더불어 완도군은 (주)제이브라운과 협력하여 가고 싶은 섬 생일도 미니 케이크 제작 등 지역 이미지와 브랜드 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먹거리 관광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완도=김광수 기자

## 해남군, 공공시설에 여성 위생용품 무료 자판기 설치

해남군이 공공기관 여자화장실 16곳에 비상용 생리대 무료 자판기를 설치해 군민 편의를 돕는다. 해남군은 지난해 ‘해남군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하고 공공화장실 내에 비상용 여성 위생용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생리대 무료자판기 사용은 해당기관의 업무 시간 중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안내데스크나 민원실에 비치된 코인함에서 코인을 가져와 화장실 자판기에 투입해 이용하면 된다. 비상용 위생용품 자판기는 군 민원실과 문화예술회관 1층, 읍·면사무소 화장실 등 총 16



대를 시범 운영하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설치 장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해남군은 2019년 해남읍 해리~수성리 일원에 솔라안심 등 160대를 설치해 우범지역 및 어두운 골목길의 환경개선을 실시했으며, 올해 2월 군 민원실 입구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해 여성기구의 안심 택배 수령이 가능하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 코로나19 방역 고삐 쥘 장흥군, 직원교육

장흥군은 지난 1일 보건소 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인근 지역에서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을 가절해 시행됐다. 교육은 의사환자나 확진자와의 접촉자 발생 등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지침 ▲역학조사서 작성방법 ▲전화상담 응대 및 선별진료소 근무 요령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장흥군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스크 54,581매, 손소독제

9,807개, 살균제 3,587통 등 방역물품을 지역주민, 다중이용시설, 유관기관, 상가 등에 배부했다. 군은 이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보건소 방역소독반 및 장흥출입, 군부대, 군청 공무원 등의 협조를 받아 버스터미널, 공공기관, 유관기관, 상가, 학원 등 방역소독도 집중했다.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체온 측정과 얼굴 인식 및 저장 가능한 지능형 온도측정 및 안면인식 패널을 주민들 많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등에 설치할 계획이다.



# 함평천지농특산물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함평천지 농특산품을 만나보세요.

함평 로컬푸드 직매장 Tel 061-324-8331








